

## 제목: 뒤바뀐 야곱이야기

## 1) 씨름한 야곱

## 2) 베엘에서 브니엘로

**한줄요약: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우리 삶**

야곱의 이미지는 마치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금쪽같은 내 새끼’ 같습니다.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어린이든, 어른이든 나이에 불문하고 어찌나 철없는 짓을 하는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한 분노를 부모에게 돌려 씨름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으면 내 자식만 아니었으면 당장 한 대 쥐어박고 싶은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넘어뜨리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태 안에서부터 에서와 싸웠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며,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사람이 굴려야 움직일 수 있는 우물의 돌을 굴리기 위해 씨름했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라반과 씨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 밝혀질 “어떤 사람”과 실제로 씨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 본문은 온 가족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씨름하였지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뼈가 어긋나게 했습니다. 야곱은 뼈가 어긋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는 끈질김을 보여주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고 듣고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물어봄으로 이름의 뜻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을 넘어뜨리며 나를 위한 신앙생활과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삶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다는 것은 야곱의 인격과 인간성 그리고 성품을 새롭게 변화 시켰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 에서와의 관계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하는 축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 베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반면, 32장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중 브니엘 땅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갈 때는 자신을 속인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반면, 브니엘에서 돌아올 때는 자신이 속인 에서를 만나게 되며 과거와 현재가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사람을 넘어뜨리며 살았습니다. 계속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에서 이름이 바뀐 뒤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마주하게 되고 참회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은 이후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참고: 100주년 주석

2/11 (창 41:25-38)

우제윤

제목: 비참함에서 존귀함으로

1) 총리가 된 요셉

2)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한줄요약: 고난은 존귀함으로 가는 통로

뉴스를 보면 세상에는 다양한 사건, 사고가 많은 것을 봅니다. 악을 행하는자, 악을 향해 싸우는 자 등 뉴스는 인간의 악에 대한 이슈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고 악에 대해 비판하고 분노하며 돌을 던지고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뉴스에서 보도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악인줄 알았던 사건이 선이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뉴스가 사실과는 다르게 보도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 돌을 던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에 오늘도 악이라 생각되는 것에 돌을 던집니다.

누군가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힘써 싸웁니다. 진리를 알기에 지금도 지키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요셉의 꿈 해몽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서기까지 많은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인해 팔려서 노예가 되고 보디발 아내에게 간음이라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자신이 행동의 결과와는 다르게 억울함과 비참한 돌 맞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돌을 맞으면 그만큼 억울한게 없는데 사실과는 다르게 누명씌어진 노예살이와 옥살이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지금까지 요셉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비참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인생을 바꿔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것입니다. 많은 점술가와 현인들이 나섰지만 아무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때 바로의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는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해몽 후 가뭄을 대비해 땅을 관리할 사람을 뽑아야 했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추천하고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힘든 놀라운 역사입니다.

애굽은 다양한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믿었고 그 신들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해몽하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신들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자신의 위대함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었죠. 요셉은 지금까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참함은 존귀케 되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인을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참함에서 존귀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세우심을 경험케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고: 100주년 주석, HOW 주석, IVP 주석

2/18 (창 45:1-8)

우제윤

제목: 하나님의 퍼즐

1) 요셉의 신앙

2) 하나님의 섭리

한줄요약: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보자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놀이인 ‘퍼즐’을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퍼즐을 맞추는게 참 즐거웠습니다. 처음에 펼쳐놓았을 때는 이게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가 한 개 두 개씩 맞춰지기 시작하면 알아가는게 얼마나 재밌던지요. 퍼즐을 하다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잘못 끼우기 시작하면 연달아서 이상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것을 헤쳐나가 결국 완성된 그림을 보는게 퍼즐의 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퍼즐이 어려울수록 힘은 많이 들지만 결국 완성이 될 때에는 얼마나 기쁘고 뿌듯한지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정체를 밝히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나는 과정은 참 길고도 험난했습니다. 막내인 요셉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는데 어느날 갑자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노예상인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어서 감옥을 가기도 하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나 하면서 한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은 드디어 요셉을 이 상황으로 만든 장본인들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을 가졌었습니다.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7-8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집트에 팔려 온 이유는 기근에서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신앙적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요셉을 판 것은 형들의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첫 시작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잘못된 시작부터 섭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노예로 팔리면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술관원장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바로의 꿈을 해몽해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된 시작처럼 보였지만 끝을 맞이하고 퍼즐 조각들이 뭉쳐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섭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함께하고는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퍼즐 조각이 1개씩 맞춰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조금씩 보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직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참고: 100주년 주석

2/25 (출 3:1-12)

우제윤

제목: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

1) 하나님의 부르심

2) 굴복한 모세

한줄요약: 때를 통한 하나님의 사용하심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춘기'입니다. 사춘기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여서 나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않았지만 조금씩 책임을 지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사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사춘기가 오는 때도 다르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도 다릅니다. 어떤 이는 사춘기를 제대로 겪지 않아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는 합니다. 그러나 결국 각자에게 정해진 때가 된다면 그들도 어른이 되어 갈 것입니다.

모세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와 같은 출신인 백성이 병사에게 맞는 것을 보고는 화를 참지 못하고 병사를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여 왕궁에서 도망쳐 버립니다. 이것에 대한 모세의 행동은 어린아이와도 같습니다. 자신이 책임지기 힘든 일을 저질러 놓고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그대로 미디안 땅에 도망쳐 살다가 애굽 왕이 죽을 때까지 숨어지냈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양 떼를 돌보고 있을 때 호렙산에서 불에 타지만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 신기한 떨기나무를 보고 있을 때 모세를 부르고는 가까이 오지 말고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인데 불꽃을 통해서 모세의 이름 부르는 반면, 거룩한 땅이기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꽃같이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인간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냅니다. 모세는 신을 벗고 하나님에게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이제 모세의 의지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종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모세가 왕자였을 때에 백성을 구하셨더라면 더 수월하게 백성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왕자라면 권력도 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모든 것을 잃은 상태보다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가 꺾여 굴복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할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모세가 왕자였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더라면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갔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철저히 의지하는 자를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철저히 굴복하고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세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오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에게 크게 쓰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고: IVP 주석, HOW 주석, WBC 주석